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4(4) : 587~593, 1999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4) : 587~593, 1999

대학교 학생식당의 가격정책을 위한 가격탄력성 분석

양일선† · 백승희* · 신서영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대학원*

Price Elasticity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in Foodservice Operations for Pricing Policy

Ilsun Yang,† Seunghee Baek,* Seoyoung Sh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e Graduate School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 (a)analyze price elastic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foodservice operations and (b)provide insight for price decision-making.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3 parts-the measurement of price elasticity, the utilization and opinions of students on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regarding respondent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600 university students of 6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the SAS package for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average price for lunch was ₩1,663 for campus food, and ₩2,965 for off-campus restaurants. The frequency of utilizing the university cafeteria was fairly high. Students felt that the proper price for lunch was ₩1,446, presenting a lower price than the actual average price for lunch. The price elasticity was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change in utilization rate when there was a price increase. The price elasticity was 2.03,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x, age, and major. The groups utilizing the university cafeteria frequently, taking longer time to go to off-campus restaurants, or that were satisfied with the university cafeteria, had a lower price elasticity than those that did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edicting the price elasticity of the target market would assist the pricing policy, and the fact that the same students have different price elasticity by place and atmosphere can be used in marketing strategie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4) : 587~593, 1999)

KEY WORDS : price elasticity · satisfaction · pricing · university cafeteria.

서 론

종래의 대학급식은 특별한 정부의 규제없이 학교 직영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개인 위탁운영으로 방치되어 있어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윤재성 1992).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교가 위탁전문업체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학생들의 행동과 의식 수준도 변화되며 요구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생존자체가 어려워지는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양일선 등 1998).

대학시절은 집에서 제한된 음식을 먹던 어린시절로부터 무제한적인 음식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는 사회생활로의 중간단계로 학비 다음의 지출항목으로 식비가 중요비중을 차지하게 되며(Adams 1997), 대학교내에는 다양한 성장배경과 문화를 가진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식사에 대한 기대도 또한 다양하다.

우리나라 도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승묵 1986)와 대학생의 외식실태를 조사한 연구(노정미 · 유영상 1989)에서 보면 식당이용시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내에서는 작은 비용차이에도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식

†**Corresponding author** : Ilsun Ya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 02) 361-3121, Fax : 02) 363-3430
E-mail : isyang@yonsei.ac.kr

당에서 학생들의 가격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운영컨셉을 설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가격은 소비자가 서비스의 가치, 품질 등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이므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가격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비스간 품질의 차이가 없어지고 서비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가격 책정은 경쟁자에 비해 서비스 우위를 점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동시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경쟁 수단이 된다(이유재 1994). 그러나, 실제 많은 서비스 기관들은 가격 설정시 수요에 변화를 주는 요소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비율, 유용한 대체품의 가격, 가격과 매출의 관계에 대한 고려, 미래의 대체품의 유용성과는 관계없이 단순하게 가격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Monroe 1989).

국내에서 행해진 학교내 식당의 가격수준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학교내 식당 이용 이유와 학교내 식당 이용시 불만사항에 관한 연구에서 가격을 한 속성으로 포함시켰거나(양일선 등 1995 ; 양일선 등 1996 ; 장혜자 1995), 가격에 맞는 제품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한 정도이다. 선행된 연구들은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거나 가격에 대한 견해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해 대학급식소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가격에 대한 요구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급식소 운영의 성패와 존립여부는 소비자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여하에 달려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격정책도구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가격탄력성 측정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해 봄으로써 가격정책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 중 남녀공학 대학 4개소와 여자대학 2개소를 선정하여 1999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1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999년 3월 27일에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1999년 4월1일부터 4월9일에 걸쳐 잘 훈련된 학생 4명이 조사대상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 학교별로 설문지 100부씩을 배포,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은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학생식당을 제외한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 중에서 56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4%였으며 이 중에 불분명하게 기재된 5부를 제외하고 총 561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이용율 93.5%).

2. 조사내용 및 방법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따라 일어나는 전체매출(가격*수량)의 상대적인 변화지수이다(우창명 1995).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로 가격이 소량으로 변화될 때 수요에 거의 변화가 없으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며 수요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탄력적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Kotler 1988).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가격탄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에 따른 이용률 변화와 가격인상시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학생식당 이용현황 및 견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 점심식사를 위한 적당한 가격, 점심식사를 위한 학생식당 이용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학생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음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음식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만족도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부식당 이용시 외부식당에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전공, 학년, 한달용돈, 용돈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회수된 자료는 SAS PC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는데,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학생식당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적정가격에 대한 견해 분석을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식당에서 지불하고 있는 가격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학생식당 이용현황, 학생식당에 대한 견해에 따른 가격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대해서는 t-test,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ANOVA를 시행하고 다중비교는 Scheffe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555명의 응답자 중 남녀구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258명(46.5%), 여자가 297명(53.5%)이었으며, 연령분포는 18~20세 미만이 4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1~23세(34.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전공에 따라 이학·공학계열 28.6%, 상경계열 26.4%, 법학, 사회과학 및 신학계열 18.8%이고 나머지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생활과학 및 교육과학계열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27.7%로 가장 많았고, 4학년(24.4%), 1학년과 3학년(23.3%)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대학원생은 1.3%였다. 한달용돈은 15만원 미만 18.7%, 15~25만원 미만 45.5%, 25~35만원 미만 25.6%, 35만원 이상 10.2%의 분포를 보였다. 용돈의 출처는 부모님 및 주위로부터 받는 경우가 75.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Category	Characteristics	Number	Percent(%)
Gender	Male	258	46.5
	Female	297	53.5
Age	18 – 20	256	46.5
	21 – 23	189	34.4
	24 –	105	19.1
Major	Humanities	95	17.2
	Science & engineering	158	28.6
	Business	146	26.4
	Art & physical education	24	4.3
	Law, sociology & theology	104	18.8
	Life science & education science	25	4.5
Year	Freshman	129	23.3
	Sophomore	153	27.7
	Junior	129	23.3
	Senior	135	24.4
	Graduate students	7	1.3
Monthly spending money	<₩149,999	103	18.7
	₩150,000 – ₩249,999	250	45.5
	₩250,000 – ₩349,999	141	25.6
	₩350,000 –	56	10.2
Source of spending money[a)]	1	66	12.0
	2	418	75.7
	3	0	0
	1+2	63	11.4
	1+3	2	0.4
	2+3	2	0.4
	1+2+3	1	0.2

a) 1=self-earned, 2=from parents or others, 3=scholarship

2. 학생식당 이용현황 분석

점심을 위해 지불하는 평균비용을 보면(Table 2), 현재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 1,633원,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 2,965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혜자가 1995년에 실시했던 연구에서의 결과가 각각 1,195원과 2,582원인 것과 비교하면 당시에 비해 학생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위한 평균가격은 438원이 상승하였고 외부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위한 평균가격은 383원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물가상승이 주된 요인이겠지만 학생식당에서 식사시의 평균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다수의 대학식당이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면서 직영시에 비해 급식단가가 상승한 것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당시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생식당에서 식사시 평균가격은 1,195원이지만 이를 운영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직영 1,090원, 위탁 1,269원, 임대 1,223원으로 위탁시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식당 이용현황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데, 점심식사를 위해 학생식당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34.3%), 주3~4회(31.0%), 주1~2회(18.1%) 순으로 식당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진 등이

Table 2. Average price for lunch

Category	Number	Mean±S.D.
On-campus food	553	1633.18±596.07
Off-campus food	543	2965.29±920.27

Table 3. Status of students utilizing on-campus foodservice facilities

Category	Characteristics	Number	Percent(%)
Frequency	Almost everyday	190	34.3
	3 – 4 times/week	172	31.0
	1 – 2 times/week	100	18.1
	1 – 2 times/month	30	5.4
	Seldom	62	11.2
Time consumed in going off-campus restaurants	<5 mins.	72	13.1
	6 – 10 mins.	181	32.8
	11 – 15 mins.	169	30.7
	16 – 20 mins.	88	16.0
	21 mins. or more	41	7.4

1982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자주 이용한다가 38.4%인 것에 비하면 대학생들의 학생식당 이용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식당 운영이 점차 전문화되어가면서 학생들의 이용율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명주가 1992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거의 매일 56%, 1주일에 1~2회 24%로 조사된 것과 비교할 때 약간 이용빈도수가 증가했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다. 외부식당으로 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분이내가 13.1%, 6~10분이 32.8%, 11~15분이 30.7%, 16~20분이 16.0%, 21분 이상이 7.4%의 분포로 나타났다.

3. 점심식사를 위한 적정가격 분석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한 적정가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평균은 1,446원으로 이 결과는 학생식당 이용현황에서 조사한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한 평균 지불비용인 1,663원에 비해 낮아 학생들은 현재 학생식당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자가 수행한 연구에서 학생식당의 가격인상시 적정가격을 질문한 결과 평균가격은 1,551원이었는데 이는 1995년에 수행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보다도 높은 평균가격을 보여주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식당의 적정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선행된 연구에서는 질문시 '가격인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학생들이 기존 식당의 가격보다는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 연령, 전공, 학년, 한달용돈, 용돈의 출처별로 점심식사를 위한 적정가격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전공, 학년, 한달용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ffe 분석 결과, 생활과학 및 교육과학 계열(1,808원)이 이학 · 공학계열이나 법학, 사회과학 및 신학계열(1,394원)보다 점심식사를 위한 적정가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1,317원) 보다는 2학년(1,504원)이나 4학년(1,526원)이 더 높은 적정가격대를 보여주었다. 한달 용돈에 따른 차이를 보면 25만원 이상인 학생들은 그 이하의 용돈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점심식사를 위한 적정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점심식사를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용간에는 양의 상관관계($r=0.31$, $p<.01$))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구하였다(Fig. 1).

Y(적정가격)=0.25×X(현재 지불가격)+1027.96

즉, 현재 지불가격이 한단위 증가함에 따라 적정가격은 0.25배 변한다는 것으로 이는 실제 지불하는 비용보다 적정가격이라 생각하는 것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들은 현재 가격도 높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이 자주 있게 되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보다 낮아질 것이다.

4. 가격탄력성 분석

1) 가격 인상에 따른 이용율 변화 분석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가격인상에 따른 이용율 변화를 살펴보면 가격수준이 현재보다 20% 상승했을 때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평균 40.51%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 \frac{-40.51}{20} = -2.03$$

일반적으로 수요와 가격의 관계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기한다. 위의 식에서 보면 가격탄력성은 2.03으로 이는 가격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므로 탄력적인 경우이다(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한다)(Kotler 1988). 이러한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의 감소분이 가격 변동분에 비해 큰 폭으로 반응하므로 식당운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이우용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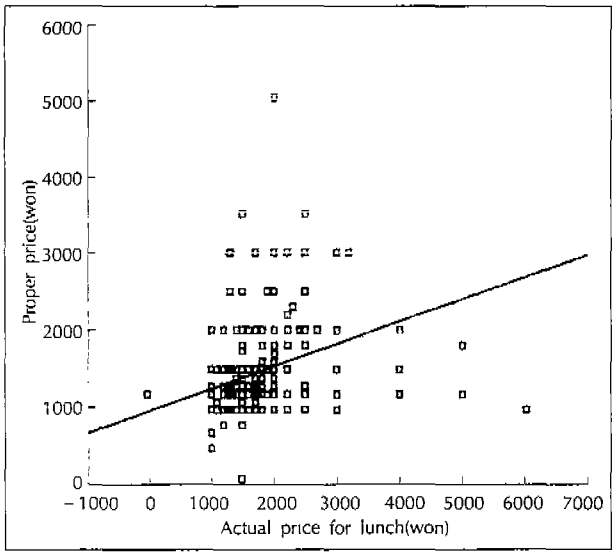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of proper price to actual average price for lunch.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격탄력성 차이 분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2.28)이 남학생(1.73)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가격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생식당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음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가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더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여학생이 가격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가격탄력성의 차이를 보면 24세미만은 24세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1$). 학년, 한달용돈, 용돈의 출처에 따라서는 가격탄력성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3) 학생식당 이용현황 및 견해에 따른 가격탄력성 차이 분석

학생식당 이용빈도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데 거의 매일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월1~2회나 그 이하로 이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에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p<.01$)(Table 4). 일반사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주 3~4회 이상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5.3%를 차지할 정도로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학생식당 가격

Table 4. Price elasticity in relation to demographics of respondents, utilization & opinions

Category	Characteristics	Number	Decrease in use (Mean±S.D.)	Price elasticity	Statistics
Gender	Male	258	34.55±27.15	1.73	T= −4.79**
	Female	297	45.68±27.29	2.28	
Age	18 − 20	256	41.57±27.42	2.08[a]	F=5.92**
	21 − 23	189	43.44±27.95	2.17[a]	
	24 −	105	32.31±26.37	1.62[b]	
Frequency in use	Almost everyday	189	32.70±25.59	1.64[b]	F=13.13**
	3 − 4 times/week	171	38.30±25.46	1.82[bc]	
	1 − 2 times/week	100	44.40±28.04	2.22[ac]	
	1 − 2 times/month	30	54.67±23.15	2.73[a]	
	Seldom	62	57.26±31.74	2.86[a]	
Time consumed in going off-campusrestaurants	<5 mins.	72	49.86±30.83	2.49[a]	F=4.34**
	6 − 10 mins.	180	43.22±27.74	2.16[ab]	
	11 − 15 mins.	168	37.08±24.48	1.85[b]	
	16 − 20 mins.	88	34.32±28.52	1.72[b]	
	21 mins. or more	41	41.71±28.19	2.09[ab]	
Overall satisfaction	Unsatisfied	219	45.43±28.24	2.27[a]	F=9.43**
	Average	278	39.06±26.93	1.95[b]	
	Satisfied	56	28.39±25.78	1.42[c]	
Satisfaction on quality of food	Bad	202	44.31±29.25	2.22[a]	F=5.32**
	Averagy	288	39.79±26.56	1.99[ab]	
	Good	63	31.59±26.35	1.58[b]	
Satisfaction on price	Expensive	238	46.89±28.56	2.34[a]	F=17.71**
	Reasonable	247	36.03±24.67	1.80[b]	
	Cheap	53	26.42±25.58	1.32[b]	

**$p<.01$

a, b, 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Response & price elasticity when there is a price increase

Category	Number(%)	Decrease in use (Mean±S.D.)	Price elasticity	F value
Look for alternatives	114(20.7)	60.70±30.36	3.04[a]	F=69.7**
Use cafeteria despite dissatisfaction	190(34.5)	24.68±20.31	1.23[c]	
Understand the price increase & continue to use	64(11.6)	27.50±22.33	1.38[c]	
Reduce the cafeteria usage	183(33.2)	48.84±22.76	2.44[b]	

**$p<.01$

a, b, 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이 인상되더라도 불평은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이용하겠다는 응답자(34.5%)가 많아 가격의 상승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가끔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학생식당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해왔으므로 학생식당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쉽게 이용율을 줄일 가능성이 많아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온 것이라 사료된다.

외부식당에 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가격탄력성의 관계를 보면 소요시간이 5분 이내인 학생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높다($p<.01$). 이들은 학생식당에서 조금의 가격상승이라도 있으면 쉽게 주변의 다른 식당을 이용할 것이므로 학생식당 주변에 다른 음식점이 가까이 있는 경우는 가격상승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생식당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따른 가격탄력성의 차이를 보면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높은 현상을 보인다($p<.01$).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식당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경우에 가격이 인상되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의 가격인상은 바로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식당의 총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학생식당 음식질의 만족도에 따른 가격탄력성은 음식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음식질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가격탄력성을 보였다($p<.01$). 이는 음식의 질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은 가격변화시 다른 식당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생식당 음식가격의 만족도에 따른 가격탄력성의 차이를 보면 현재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 집단의 가격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격정책 변경시 대상집단이 현재 가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한 후 이에 합당한 가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가격인상시 대응방안에 따른 가격탄력성 분석

가격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면(Table 5), 34.5%는 '불평을 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이용하겠다', 33.2%는 '이용빈도를 줄이겠다'고 응답하였고 20.7%는 '다른 식당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각 집단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해 보았는데, 가격탄력성이 높은 순서는 '다른 식당을 찾는다'(3.0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이용빈도를 줄인다'(2.44), '인상이유를 알면 이해하고 그대로 이용한다'(1.38), '불평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이용한다'(1.23)의 순이었다.

가격인상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이용한다'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가격탄력성도 이 집단이 가장 낮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의 가격을 인상하여도 운영자 입장에서 큰 수입변화는 없을 것이다. 만약 학교밖 식당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 대학교에서는 가격인상시 '다른식당을 찾는다'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격인상을 유보하고 오히려 약간의 가격인하로 식당의 총수입을 높이는 방향의 가격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당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파악하고자 학생식당의 이용현황 및 견해조사, 가격인상에 따른 이용율 변화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대상 집단을 일반사항, 학생식당 이용현황 및 견해에 따라 세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식당 이용현황 및 견해분석

1) 학생식당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점심을 위해 지불하는 평균비용은 학생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1,633원,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2,965원이었으며 학생식당 이용빈도는 거의매일(34.3%), 주3~4회(31.0%), 주1~2회(18.1%)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식당으로 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분 이내 13.1%, 6~10분 32.8%, 11~15분 30.7%, 16~20분 16.0%, 21분 이내 7.4%로 나타났다.

2)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한 적정가격의 평균은 1,446원으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비용 1,663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전공, 학년, 한달용돈에 따라 적정가격에 대해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점심식사를 위한 적정비용에 대한 견해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r=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Y(적정가격)=0.25×X(현재 지불가격)+1027.96이다.

2. 가격탄력성 분석

1) 가격인상에 따른 이용율 변화를 통해 가격탄력성을 조사해 보았는데 가격수준이 현재보다 20% 상승시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평균 40.51% 감소할 것이라 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3으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은 성별, 연령,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학생식당 이용빈도, 외부식당에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학생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음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가격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학생식당 이용빈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고, 외부식당에 가는데 소요시간이 길면 가격탄력성이 낮고,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격인상시 대응방안에 따른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가격탄력성이 높은 순서는 다른 식당을 찾는다(3.04), 이용빈도를 줄인다(2.44), 인상이유 알면 이해하고 그대로 이용한다(1.38), 불평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이용한다(1.2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식당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기가 난해하였다. 따라서 다른 급식형태에서도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집단간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탄력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2) 동일집단내에서도 가격탄력성을 조사한 후 가격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인 인테리어 변경, 서비스 강화, 후식이나 샐러드바 추가, 배식형태 변경, 식당홍보 등을 요소별로 적용시킨 후 가격탄력성을 재분석, 비교하여 소비자의 가격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와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격인상정책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상집단의 인적사항, 학생식당 이용현황 및 견해, 가격인상시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가격탄력성 수준을 미리 예측해 본 후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dams SA(1997) : Socioeconomic effects on college student food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levels based on choices available. *J of College & University Foodservice* 3(3) : 63-72

Kotler P(1988) : Marketing management, 6th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Monroe K(1989) : The Pricing of services. in Congram CA and Friedman ML, Handbook of Marketing Services. New York : AMACOM, pp.20-31

노정미 · 유영상(1989) :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 65-74

양일선 · 이영은 · 김동훈(1998) : 대학급식소 운영형태 변화에 따른 이용실태 및 만족도 비교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5) : 423-430

양일선 · 이진미 · 차진아 · 한재정(1996) :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의 외식서비스 특성에 대한 중요인지도와 수행만족도 비교.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5) : 663-671

양일선 · 장윤정 · 김성혜 · 김동훈(1995) : 효율적인 대학급식 관리체계 및 경영전략을 위한 소비자 태도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4) : 327-337

윤재성(1992) : 대학 구내 식당. 지성과 패기

이승묵(1986) : 도시 거주 청소년의 외식 구매 형태에 관한 연구(패스트푸드 제품에 대한 태도 중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우용 · 정구현 · 이문규(1998) : 마케팅원론. 형설출판사

이유재(1994) : 서비스 마케팅. 학현사

장혜자(1995) : 대학급식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관리요소 평가 및 급식관리기준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영진 · 이정원 · 김미리(1982) : 대학식당외 식단의 특성과 운영실태조사(1) ~ 식사습관 및 이용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5(2) : 15-23

한명주(1992) : 서울지역 대학식당의 이용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 113-118